

■ 2023년도 올해의신작(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_연극분야
- 회의일시
 - (3차 실연심의) 2023년 3월 28일(화) 11:00 ~ 3월 31일(금) 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CJ아지트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 3차 실연심의는 1차 서류심의를 거쳐 2차 PT 및 인터뷰 심의 등을 통해 선정된 10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 실연심의를 참가한 예술단체와 무대 스태프, 원활한 심의를 위해 애쓰신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실연심의를 늘 함께한 관객평가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또 차질 없는 일정 진행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실연심의는 동일한 무대조건에서 20분 이내 장면구성(배우의 이동과 동선)이 포함된 60분 간 낭독공연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도구 없이 소도구만 허용하는 등 동일한 조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기에 각 작품이 지향하는 실제 작품 무대 크기(중·대극장 및 소극장)와 공연 시간에 따른 연출 구성안(다양한 매체 활용 등)에 있어 작품을 구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지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먼저 실연심의 전, 각 단체가 제출한 공연 포트폴리오(무대, 조명, 의상, 무대음악 등의 계획서) 및 수정 대본 등을 면밀히 살펴봤으며 지난 심의와 비교해 무대연출 및 대상 관객개발 계획에서의 수정 변화된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연 후 심의지원 단체 대표자 및 연출, 작가의 인터뷰 등을 참고하여 작품이 제시하고자 하는 차별화된 주제와 구현하고자 하는 미학적 우수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앞으로의 작품 확장성과 개방성에 맞추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3차 실연심의는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타당성(예산 및 일정계획)10%, 실행역량의 우수성 20%, 관객평가 20%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관객평가단의 각 작품 평가는 성별, 세대별, 또한 다양한 공연예술경험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 '공연예술창작산실'의 지향과 목표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 2차 전담심의위원만의 심의와는 별도로 관객평가단의 작품 평가는 다양한 관객의 작품 선호, 호응도 등을 통해, 본 공연에서의 예술적 수월성, 흥행을 위한 타깃 관객 개발 등에 대한 유의미한 작품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 지원규모는 전체 800,000,000원의 예산 중, 작품 당 최대 2억 원 지원할 수 있는 가운데, 저희 7인의 심의위원은 최종적으로 5개 작품(중·대극장 3작품, 중·소극장 2작품)을 선정했습니다. 3차 실연심이에 참여한 10개 단체 작품은 뚜렷한 주제의식과 함께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연 낭독공연을 통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목표를 선명하게 드러낸 작품도 있었지만, 열린 가능성을 두고 작품을 발전시켜가는 과정 가운데서 실현 목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작품의 주제 의식과 특색을 드러내야 하는 실연심이의 난점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더욱 세심하게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심의를 통해 지적된 작품의 개선 요소 보완이 이루어졌는가, 희곡의 무대화에 있어서 작품의 시공간에

대한 해석과 구현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각 작품의 캐릭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인물 구성 연출이 자연스러운가, 본 공연으로 제작되었을 때 예술적 수월성을 바탕으로 작품의 공연미학이 확장될 수 있는가, 동시대 관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없는가 등을 놓고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올해의신작]이라는 지원사업만이 갖고 있는 의미와 성과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창작 신작' 발굴에서 신작이 제시하고자 하는 '동시대성', 즉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시대적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공감을 위한 전달 방식, 그 함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제작 작품의 경향을 살펴보면 각 작품의 대상관객 설정과 그 예술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시각차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하였습니다. 우리의 연극은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해왔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재난 등을 소재로 다루거나,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세대 갈등, 차별과 편견, 소외, 불평등, 불공정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 삶의 가치와 주체성에 대한 깊은 사유와 탐구가 돋보이는 작품 등 이번 심의 대상 작품들에서도 참신하고 새로운 접근과 이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연극적 구성보다 인물의 독백과 자기서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소재의 신선함을 드러내고 긴장도 높은 장면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익숙한 장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물과 세계의 대화 의지에 주목하면서도 이야기의 구성과 캐릭터, 그 밖의 설정들이 조화로운 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장르의 특성을 살리면서 '예술적 수월성', '동시대성', '독창성'과 '다양성'을 갖춘 우수한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결코 단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치관과 지향점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바라보는 열린 사고와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대화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실연 심의에 참여한 작품 모두가 각각의 뛰어난 장점과 함께 다소 아쉬운 단편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기에 최종 선정작을 합의하기까지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과정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지원 심의에서는 특히 '지원액 결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선정작 편수를 한 편이라도 늘려 지원 단체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의견과 지원금 총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단체의 지원액을 줄인다면 신작 제작 지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2023년 [올해의신작] 심의 위원회에서는 '신작 제작 지원사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제작환경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들어 창작자(창작단체)의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작품 완성도를 위한 총예산 계획을 삭감 없이 최대한 존중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아쉽게 탈락한 단체들의 창작역량 강화의 기회가 뒤로 밀리거나, 관객들에게 한 작품이라도 더 가능성 있는 작품을 소개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을 동시에 갖게 합니다. 또한 지원 제작된 작품이 재공연이 어렵고 일회적 창작 지원에 머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바로 이러한 뜨거운 토론을 통해 본 공연으로 올려지게 될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이 앞으로 완성된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날 때 그 의미와 성과를 쉽게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참여한 우수한 작품 모두를 관객 여러분에게 내놓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복잡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낙관주의 사이에서, 제작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보여준 해당 작

품의 가능성을 믿고 부디 관객과의 만남에 좋은 성과가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더불어 창작산실의 앞으로의 방향과 정체성, 관객 대중과의 교감 안에 이 세계에 대한 공동체적 가치 발견 등에 대해 성찰을 거듭하길 요청해봅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작품의 특색과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실연심의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3차에 이르는 심의 과정에서 각 지원 단체의 예산 및 실연 계획이 공통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랐는데, 관련 내용이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했던 점과 실연심을 위해 압축된 장면으로 본 공연의 가능성을 가늠해야 하는 아쉬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제작환경에 놓여있는 연극이라는 장르에서 시대와 소통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예술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 본공연에 오르는 최종 선정작이 결정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이는 공연예술계가 한편으로 열악하고 불안정한 창작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은 변함없어 보입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역사적 지역성을 가진 작품들이 많아졌다는 경향을 확인합니다. 또 예년에 비해 중·대극 장용 작품이 많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동료 예술인의 협업에 대한 갈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좋은 작품을 관객에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에게 원치 않는 결과로 심려를 끼칠 수밖에 없게 돼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 다른 기회의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의미 있는 시도와 시대적 고민이 관객 여러분과 만나길 고대합니다. 선정된 다섯 개의 단체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부디 동료 연극인 및 이 시대의 관객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실연 심의에 참여해주신 단체들,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23 올해의신작 연극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3도 올해의신작(창작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_창작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3차 실연심의) 2023년 3월 14일(화) 11:00 ~ 3월 17일(금) 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CJ아지트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분야 실연심의를 4일간 10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의신작 3차 실연심의를 통해 10편의 작품 중 4편, 750백만원을 본 공연 제작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본 심의는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20%)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관객평가단의 평가(20%)를 합산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더하여 심의위원들은 새로운 시도를 통한 작품의 의미와 음악적 완성도 측면에서도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심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다양한 소재에 대한 탐색과 독특한 형식적 접근이 많았고,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제기한 작품들도 꽤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흥미롭고 기대되는 좋은 작품들이 상당수 눈에 띄어 심의위원 모두 평가를 하는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한국 창작뮤지컬의 미래가 밝아 보여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기획한 작품들이 많아 각 작품만의 독특한 기획 의도, 무대 구성과 연출 형식에 대한 신선함, 음악적 완성도와 음악 구성에 대한 장면별 하모니, 악기 구성 등을 감안하여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작품을 선정하지 못해 아쉬움이 큼니다. 부디 이번에 선정된 모든 작품들이 신선하고 완성도 높은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한국 뮤지컬 시장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실연심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창작진, 제작사 분들, 그리고 관객평가단으로 함께 심의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올해의신작(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올해의신작(후보)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4월 5일(수) 10:00 ~ 4월 7일(금) 18:00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당해 연도의 주목받을 만한 신작의 산실이 되고자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갖춘 본 사업은 22년 11월 서류 심의와 12월의 인터뷰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본 공연(올해의 신작)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10개의 작품을 20분의 실연 심의와 15분 인터뷰 심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심의위원들은 예술적 수월성과 동시대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담론과 형식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완성도 높은 신작 무용공연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20분 간 무대 위에서 펼쳐진 실연심의 과정 내내 공연단체의 진지함과 긴장감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보았습니다.

각 작품별로 전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의 축약이나 완성된 장면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등 자유롭게 선택되고 준비된 공연과 이후에 바로 이어진 인터뷰를 통하여 실연심의 작품에 대한 안무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시된 포트폴리오와 예산계획, 완성작 공연에 이르는 전반적인 프로덕션 과정에 대한 질문까지 넉넉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최대한 질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연심의 과정은 단체로서는 과도한 장치 반입 조율로 인한 무대적 구현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음을 짐작하였고 최대한 감안하고 감상하였으며, 진행을 위한 단체의 조율과 양보 덕분에 실연심의가 매우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최종심의 논의는 20분 제시된 실연심의 작품이 남은 시간과 조건 속에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어 본 공연으로 제작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핵심이 되는 물리적 장치를 통해 구현되는 이미지, 시각적인 재료와 효과의 적합성, 주제를 담게 될 구성과 구조의 존재 여부, 구체적인 움직임의 질감, 몸과 공간의 관계 설정과 전시의 방식 등으로 꼼꼼히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애초에 구상된 방향과 설정을 놓쳐가고 있거나, 이번 작업의 특수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장르적 관습 때문에 창조성을 예측하기 힘들 경우, 1시간의 작품을 위한 필수적인 인물의 구축과 갈등, 갈등의 해소에 대한 장치가 없을 경우, 주제는 매우 시의적이나 그것에 걸맞는 무대 언어와 표현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전작(全作)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뒤로 하고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짧은 실연이었음에도 자신에 대한 예술적 성찰이 꾸준히 이뤄진 안무가를 발견한 것은 모든 심의위원에게 완성작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예술적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 작품의 주제와 혼합시키는 역량이 성장하고 있는

안무가들은 자신의 이전 작을 넘어서는, 자기표절이 아니라 자기 창조의 길로 들어섰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동시대적인 민감한 주제나 형식에 대한 무용 예술의 응답이 될 만한 작품들은 완전히 새로운 작업이기에 첫 발을 떼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나 그럴수록 다양한 사전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며, 창작팀 내에 안무자와 함께 스터디와 리서치, 외부적인 시선을 보탬 팀을 구축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안무자 혼자만의 안무만으로, 동작이라는 안무의 좁은 의미만으로 동시대를 소통하는 작품을 만들기는 이제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심의위원님들의 다양한 피드백과 전문적 자문이 있었으나 이제 우리는 객석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 실연심의를 통과한 6개 작품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제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였습니다.

1, 2차 심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 무용 창작 환경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본 사업이 주는 또 하나의 무게감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무용 예술의 핵심이 되는 무용수에 대한 안전한 작업환경 준비와 관계 설정, 배려, 실질적인 인건비와 고용보험 관련 사항 등이 타 장르 작업자나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하지 않다는 종합 의견이 있었습니다.

무용수 경험이 있는 안무자가 자신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무용수를 배려하는 새로운 창작환경과 문화를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은, 안무자가 앞으로 창작할 작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안무자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안무자들이 출연하고 그들이 새로운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이즈음에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작 환경을 기대해 봅니다.

완성작까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하나의 작품을 탐구하고, 장애를 만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향해에 응원을 보내며 2023년 올해의신작에 공연 될 완성작에 미리 박수를 보냅니다.

2023 올해의신작 무용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올해의신작(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_음악분야
- 회의일시
- (3차 실연심의) 2023년 4월 20일(목) 10:00 ~ 4월 21일(금) 17:00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_음악분야 사업은 단계별 과정 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신작 발굴 및 예술적 수월성, 동시대성, 독창성과 다양성을 갖춘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공연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공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 2차 심의를 거쳐 선정된 총 7건의 올해의신작(후보) 음악분야 사업 중, 이번 3차 실연심의(쇼케이스) 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은 본공연의 제작비 등 직접 경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20%)은 물론, 관객평가단(20%)의 점수를 포함하는 심의기준과 가중치를 가지고 그 어느 심의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총 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원단체 및 신청인들이 이미 1, 2차의 심의과정을 통해 검증된 탁월한 예술성과 독창적이고 진취적인 사업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세 번째로 이루어진 이번 심의로 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여 기획력을 겸비한 작품의 콘텐츠화 및 브랜드화를 시도한 몇몇 사업의 예술적 도전과 철학적 고민들에 심의위원 및 관객평가단들의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음악적 경계를 허물고 좀 더 열린 장르를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의 예술적 가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만,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닌 작품들임에도, '올해의신작'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다소 진부한 프로그램의 반복을 보이며 추상적인 사업계획 등으로 본공연을 제작하기에는 준비가 미흡한 사업들도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리와 무대, 다양한 음악적 융합 및 창작을 시도하는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었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이러한 작품들을 무대에서 완성도 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으로 내년의 본공연을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연심의 무대의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체들의 정성어린 실연심의에 대한 예술적 열정과 진지함은 심의위원들 및 관객평가단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소리, 새로운 음향, 새로운 철학으로 타 장르와의 융합을 모색하고 실험적인 차별성을 두되, 진부하지 않고 음악적 탁월함과 완성도를 겸비한 작품들과의 만남은 이 사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케했습니다. 다만 우수성이 인정되는 여러 사업들이 기획력 등의 부재로 지원신청예산 수립 등의 실제적인 문제를 떠안고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지원신청인(단체)는 내년의 본공연 지원을 통해 더욱 참신하고 완성도 있는 창작활동을 펼치기를 응원하며, 선정되지 못한 지원신청인(단체)들에게도 아쉬움과 격려를 전하며, 모든 지원신청인(단체)을 응원합니다.

■ 2023년도 올해의신작(창작오페라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_창작오페라분야
- 회의일시
- (3차 실연심의) 2023년 4월 11일(화) 10:20 ~ 4월 12일(수) 18:00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분야는 동시대성과 독창성, 예술적 다양성을 갖춘 우수한 창작오페라발굴을 목적으로 단계별 과정(기획, 실연심의, 본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연심의는 2022년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5개 단체와 2023년 올해의신작(후보) 1개 단체로 총 6단체가 치열하게 경합하였습니다.

심의는 예술적 우수성과 차별성 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실행역량의 우수성 20%를 기준으로 삼고 관객평가 20%를 더하여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포트폴리오, 대본과 악보, 예산집행안을 면밀하게 사전검토하고 30분 실연과 개별 면접을 통해 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마친 후 심의위원회는 다시 작품별 심층논의를 거쳐 최종 3개의 본공연 지원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예산과 일정계획은 모든 지원단체가 체계적인 실행 가능안을 제출하였고 추가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단체의 추가설명 및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 세부 심의중점 사항은 1) 음악적 완성도와 독창성 및 악보와 대본의 유기적 결합 2) 필수 창작진 및 실연자 역량 3) 포트폴리오에 제시된 공연요소의 작품성(예술적 우수성과 차별성)과 구체성 4) 동시대성과 시의성 5)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에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작곡가의 오케스트레이션 완성도가 높고 합창과 아리아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에 좋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악보와 대본의 유기적 결합을 중요하게 심의했으며 안정적인 음악구조에 비해 가사와 레치타티보 구축이 아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탁월한 경우에는 예술적 독창성과 차별성에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2) 본공연 참여가 확정된 실연자의 예술적 역량 또한 신중하게 검토하였고 실연심에서 보여준 지휘자의 음악해석, 성악가와 합창단의 표현력도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3) 연출, 무대, 조명, 영상, 의상, 안무 등 공연 중요 요소를 제시한 포트폴리오의 경우, 단체별 편차가 컸습니다. 대본과 악보에 대한 2차 창작의 핵심내용을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본공연에 대한 예술적 기대감과 이해를 높였습니다. 반면 내용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거나 창작 포트폴리오가 아닌 기획실행안에 가까운 경우에는 종합예술로서의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4) 동시대성과 시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 추세에 맞게 소재 선택과 주제, 표현형식에 있어 의미 있는 탐색과 시도가 전체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작가의 고심과 집필과정의 치열함을 예상할 수 있는 작품도 눈에 띄었습니다. 객석과 무대 공간을 여러 형식으로 풀어내려는 시도 역시 이런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5) 시대물, 오피스물, 동화 혹은 소설의 현대적인 재창작물, 사회물, SF, 재난물 등 다양한 장르가 개발되고 중·대극장과 소극장에 고

른 지원이 있어 향후 창작오페라의 다양성과 관객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인용음악 허용범위와 실화소재의 당사자 협의 과정, 실연 중 동의를 구하지 않은 초상권 문제 등도 인터뷰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평가를 통해 대전오페라단 <이상의 날개>, 울산문수오페라단 <3과 2분의 1 A>, 글로벌아트오페라단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이 최종선정되어 지원금 3억 8천만원을 작품별 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차등배분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오케스트레이션, 음악과 대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연출형식, 이후 작업보완과 개발에 대한 창작진의 적합한 문제의식과 역량, 본공연 실행에 대한 단체의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볼 때 2024년에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 과정을 온 몸으로 밀고 나가며 독자적 예술 방법론을 가지고 매진하신 모든 단체의 노고에 깊이 감사합니다. 모든 작품이 마침내 더 나아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며 응원합니다.

2023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3년도 올해의신작(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후보)_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3차 실연심의) 2023년 4월 15일(토) 10:30 ~ 4월 16일(일) 17:30
- 회의장소 : 서울 마포아트센터

공연예술창작산실은 공연예술 전 장르에 걸쳐 창작의과정(조사연구 및 사전제작)과 올해의신작(본 공연 제작)을 단계별로 지원하여 우수 창작 공연을 발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대표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2023년 올해의신작(후보) 전통예술분야에는 총 19건의 지원작이 접수되었고, 1차 서류심의를 통해 11건,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전통예술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곡가, 연주자, 교육자, 기획자, 평론가 등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심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예술은 오래된 소재와 악기를 토대로 하는 장르지만, 한편으로 창작을 통해 동시대적 감수성을 흡수하고 발전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원작들이 품고 있는 창작 경향을 살펴보고 굵은 원리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시대적 감수성과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작품을 탐색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이 심의 동안 작용했는데, 이는 공연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현실성), 예산과 작품 규모·성격 비교, 전통의 계승 의지와 창작력의 균형 등이었습니다.

전통예술에는 다양한 하위 장르가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여러 장르의 자양분을 흡수·해체·재구축하려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연희적 타악, 굿, 정악, 창극, 현대음악 등이었는데, 일단 이러한 장르에 대한 연구와 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과 창작의 '균형 잡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품은 창작보다 계승의 비중이 더 강했고, 어느 작품은 전통에 대한 인식과 연구 없이 창작으로만 일방 통행하려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성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심의와 인터뷰 심의는 작품의 실체가 목전에서 펼쳐지는 실연 심의와 달리 심의위원이나 지원자가 지원서에 담긴 청사진에 상상력을 가동하면서 작품의 청사진을 살펴보고 더듬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지원자들의 상상력이 실현 가능성보다 앞지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의 상상력과 기획력도 중요하게 살펴 보았지만, 한편으로 예산과 기간 등의 현실적인 조건을 따져가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이나 미디어아트 등 첨단 미디어 기술을 도입한 지원작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청각예술에 중점을 둔 전통음악에, 오늘날 많은 이들이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시각적 장치를 가미하여 시청각이 상호조화된 공감각적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원작은 대중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시각적 장치나 연출에 비중을 더 많이 둬으로써, 작품 제작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전통)음악을 소홀히 한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에 선정 여부를 막론하고 지원작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류심의에서는 '본질이 되는 전통음악'과 '일시적 효과로 가미된 연출'을 잘 구분하여 살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연심의에서는 전통예술과 첨단 효과가 무대라는 장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여 통일감과 균형성을 잘 이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타의 지원사업보다 지원 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많은 수의 예술가들이 참여하거나 협업하는 대규모 작품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고 명성 있는 예술가와의 협업을 시도하는 지원작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기획안에 명시된 지원자가 자신의 작품에서 충분한 주체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업하려는 유명 예술가에게 작품 제작의 기회만 제공하는 소극적이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배제하였습니다.

지원작의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예산을 기획한 지원작은 규모, 진행과정, 적합성을 따져 배제하거나, 인터뷰 심의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하며 진행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물가 상승 현상은 본 심의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최근 인적·물적 물가의 상승과 함께 공연 제작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 배분 시 이러한 물가 상승 현상을 고려했고, 선정된 단체와 지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을 제작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선정된 그룹들의 공통적인 강점과 공통점이라면, 차별화된 기획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현력(연출력·연주력), 전통의 소재를 적합하게 차용하여 사각지대에 있던 전통적 요소를 발견하고 조명하려는 남다른 시도와 안목, 지속적인 활동과 연혁, 전통예술과 어우러질 수 있는 무대연출과 디자인 등을 갖추었습니다.

전통예술은 여러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작들이 보유한 우수함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지원작들이 차용하고 표방하려는 소장르에 대한 안배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최근 창작 경향이 민속음악 같은 특정 장르로 집중·국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놓치거나 돌보지 못하는 장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주소를 파악하며 이번 심의에서는 정악, 민속음악, 창극, 연희 등 장르적 안배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의 기운이 각 장르에 기운을 북돋워 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지원금 액수가 크고, 이를 통해 보다 확장된 공연을 기획·제작·연출할 수 있는 것이 창작산실의 매력입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본 사업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규모나 콘셉트적인 면에서 기존과 다른 작품을 선보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연 횟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공연 횟수가 평균 2회를 맴돌며, 작품 구상에는 적극적이거나 홍보 계획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거나 작품의 아이디어를 잘 반영한 홍보 방법을 고안하거나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취지나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심의를 통해 체험한 경험과 시도의 기회를 본인들의 향후 다른 기회에 잘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2023 올해의신작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